

# 정극인의 시가에 드러난 자연시 연구

유 옥 례\*

## 〈차례〉

1. 머리말
2. 자연에 대한 시각
3. 정극인 자연시의 실체
  - 3.1 <불우현곡>과 강호
  - 3.2 <상춘곡>과 귀거래
4. 맺음말

## 1. 머리말

불우현 정극인은 관직에서 물러나 전라도 태인현으로 돌아온 뒤 초가를 짓고 그 집을 不憂軒이라 명명하여 은거를 다짐하였다. 그는 오로지 고을의 자제들을 모아서 가르치며 한편으로는 향약계축을 만들어 향인들에게 정성과 신의를 권면하였다. 불우현이 태인에서 우거하게 된 시기가 정확히 밝혀지지 않았지만, 행장에 보면 ‘치가를 따라서 현의 남쪽 태산 고현에 살게 되었다’는 기록을 통하여 태인에 우거하게 된 연유를 알 수 있다.

정극인은 단종 1년(1453)에 식년 문과에 등과하여 장래가 촉망되었으

\* 조선대학교

나, 세조의 왕위 찬탈로 벼슬을 버리고 향리에 내려가서 후진을 양성하며 초야에 묻혀 지냈던 선비다. 정극인은 태인에 살면서 전원의 아름다움을 시로써 나타냈다. 그의 <상춘곡>은 강호가단의 형성을 이루었다. 특히 <상춘곡>으로 끝나지 않고 송순, 정철에게 영향을 끼치었다. 정극인의 자연시의 대상은 한시, 경기체가, 가사, 시조 등에 드러나지만 특히 <상춘곡>과 <불우현곡>에 짙게 드러나고 있다. 정극인의 시가에 드러난 자연은 강호자연과 귀거래자연이다. 본고에서는 <상춘곡>과 <불우현곡>에 드러난 자연시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한다.

## 2. 자연에 대한 시각

정극인 시문학에서 창작의 대상은 즐거움, 감사, 송축과 임금에 대한 戀君 등 다양하다. 그러나 지금도 남아 전해지는 작품을 살펴보면 정극인 시문학의 주류는 自然이었다. 자연을 노래하고 찬양했던 자연시인이다.

동양에서의 자연에 대한 의미는 정의하기는 쉽지 않다. 그 이유로는 자연을 보는 시각과 생각이 다르기 때문이다. 처음으로 ‘自然’이라는 용어가 사용된 것을 보면 李耳(604~?)의 『道德經』<sup>1)</sup>이다. 『道德經』은 노자가 지은 책으로 『老子』, 『五千經』이라고도 한다. 자연이라는 용어는 지금으로부터 2500여 년 전에(B.C.6) 동양에 처음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동양 사람의 의식에 ‘자연’이라는 새로운 언어가 이때부터 시작되었음을 의미한다. 노자의 자연은 “作爲하지 않는 것으로 저절로 그리워 순리의 세계요, 作爲하지 않아도 질서와 수순을 따라서 저절로 마땅하지 않는 것이 없는 상태가 자연이다.”라고 보고 있으며 타인에 의해서 조작한 것과 人

1) 『道德經』은 노자가 지은 책으로 『老子』, 『五千經』으로도 알려져 있으며, 노자가 쓴 둔하기 위해서 陳나라로 가면서 함곡관 수비대장 尹喜의 간청을 받고 3일 동안 그곳에 머물면서 五千字의 글자로 지은 경서라고 전해진다. 이 『老子』의 처음에는 竹簡에 기록되었으며, 상·하 2편 전문 81장으로 된 道家의 성전이다.

爲와 作爲의 결과로 변형된 상태는 결코 자연이 될 수 없다. ‘거짓과 허위’라는 뜻의 ‘僞’의 파자는 ‘人+僞’이니, 인위는 곧 거짓이라는 뜻과도 통하는 이야기이다. 그래서 作爲는 결코 진리가 될 수 없으며 순수한 無爲만이 진리라는 생각이 老子가 보았던 자연인 셈이다. 노자의 자연은 無爲自然의 세상이다. 그 곳은 부자연스럽거나 만들지 않는 세계, 곧 사실과의 관계에서 떠나지 않은 공간으로 자연과의 친화성에 두고 있다. 쉽게 다다르게 힘든 곳이라고 할 수 있다.<sup>2)</sup>

공자와 노자는 중국을 대표하는 사상가이지만 그들이 추구하는 세계는 다르다. 공자와 노자가 태어난 배경도 정반대이다. 공자는 황하 문명을 배경으로 태어났고, 노자는 양자강 문화를 배경으로 하고 있다. 공자가 태어난 황하는 척박한 땅이라 인위적이고 노력하지 않으면 안 되는 공간이다. 그와 다르게 노자가 태어난 양자강은 천혜의 자연조건으로 작위하지 않아도 되는 그야말로 자연적일 수밖에 없었다. 그래서 노자는 무위와 자연적인 삶을 핵심사상으로 자연을 강조할 수밖에 없었다. 공자와 노자는 태어난 배경이 다를 뿐만 아니라 그들이 추구했던 사상도 다르다. 공자는 “仁은 愛人이다”라고 한 마디로 정의한다면 노자는 仁을 몰라서가 아니라 자연과 대치되는 반자연성을 거부했으며 그 자연 속으로 들어가 고자 했던 것이다. 그는 자연적일 때만이 가장 이상적인 사회로 보고 있다. 인위를 그리워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의 상태인 자연을 그리워했던 인물이다.

부자도 이미 강호를 알고 자연을 동경하고 있었고, 歸去來하고 싶었지만 귀의하지 못해서 위연탄왈한 것이다. 그런데 부자의 고민은 강호를 알고도 가까이 다가가지 못한 데 있었다. 여기서 부자가 강호에 귀거래하지 못한 이유는 그의 도가 인도의 실현에 목적이 있었기 때문이다. 유자들은 자연을 알고 있었으나 언제나 우선순위는 인도의 실현에 있었다. 이러한 맥락에서

부자의 뜻을 따랐던 뒷날의 유자들도 인도와 강호의 사이에서 갈등과 고민을 겪었을 것이다. 그래서 사대부들은 결국 출사(社會)와 脫俗(자연)의 틈을 끼어서 갈등을 맞아야 했다. 곧 치인이라는 대의를 앞세워 사회로 나아가고자 하는 집념과 자연에 귀의하고자 하는 동경인 귀거래의 애착 때문이다. 그러나 조선조의 사대부들은 다행히 현실과 이상으로 대립되는 두 세계의 갈등을 피하고 함께 수용하여 조화의 길로 가는 출구를 찾아냈다. 곧 경세재민의 자리에서 물러나면 淸水와 高山이 기다리는 수기의 도장으로 자연을 찾는 것을 명분으로 삼았고, 기회를 얻으면 자연 속에 살다가도 경제재민을 위한다는 명분으로 강호를 탈출할 수 있었다. 그런 의미에서 조선조의 사대부들은 어느 쪽의 질타도 면제받고 명분있는 출사와 명분있는 치사를 동시에 무리없이 수행하는 삶을 성공적으로 이끌어갈 수 있었다. 그들은 강호 쪽에서 보아도 인도를 펴는 구도자이고, 치인 쪽에서 보아서는 수기하는 깨끗한 선비로서의 대접을 받았다는 것이다. 부자의 자연은 이런 뜻에서도 필연적으로 인간세계의 저편에 설정되어 있어야 했다. 그래서 부자의 자연은 치인의 직에 마음을 두고 있는 동안은 바라만 보아야 되는 대상으로서 강호라고 생각한 것이다. 따라서 노자나 석가는 자연을 찾아 들어야 만날 수 있고 유자들은 자연을 벗어나야 만날 수 있다.<sup>3)</sup>

조선조 사대부들은 현실과 이상으로 대립되는 세계의 갈등을 피하고 조화로움의 길인 자연으로 들어섰을 것이다. 이에 대해 김행선은 노자는 공자가 추구하는 것은 인위적인 주대사회가 아니라, 순박하고 절박한 자연상태의 촌락사회로 돌아가고자 했던 것이다. 그리하여 노자는 민중들의 살아가는 소박한 ‘자연사회’를 주목함으로써 상식화된 지배사상으로부터 벗어나 민초들의 일상적인 생활 및 사회에서 소외된 삶을, 그리고 절박한 삶들을 통해서 그의 사상적 기초를 정립했던 것이다. 여기에 노장사상의 큰 특질이 있다. 따라서 공자사상이 ‘도시형’이라면, 노장사상은 ‘촌

2) 김성기, 「송강의 자연관」, 『古詩歌研究』, 韓國古詩歌文學會, 1995, 232~233쪽.

3) 김성기, 「儂仰亭 宋純의 自然詩 研究」, 『南冥學研究』, 慶尙大學校 南冥學研究所, 2000, 13쪽.

락형'의 사상<sup>4)</sup>이라고 했으며, 朴一峰은 『中國思想史』에서 도가(道家)는 여성적이며 농촌형의 사상<sup>5)</sup>으로 보고 있다. 유가는 도시형이고 도가는 농촌형이라는 말이다. 도시는 사대부들의 치세의 공간이었으며 물질적으로 풍부한 곳이다. 반대로 농촌형은 만족을 아는 삶이다. 인간이 태어나서 처음과도 같은 그야말로 자연상태에 가까운 것일 것이다.

노자가 자연적인 삶을 강조한 것을 김종오는 『노장인생학』에서 공자형과 노장형의 타입에 관해 의사와 환자간의 진료과정을 설정해서 재미있게 유형화시키고 있는데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공자형의 의사는 첫 눈에 보기에도 성실한 의사이다. 용모나 옷차림이 단정하고, 환자에 대해서도 예절바르고, 말수는 적으나 요점을 분명히 하면서, 원리원칙에 따라 용의주도하게 환자의 질병을 체크하는 사람이다. 그 결과 공자형 의사는 환자에게 맞는 약을 처방해 줌으로써 환자가 단번에 신뢰와 존경심을 품게 되는 사람이다.

다음 노자형의 의사는 조용하고, 온후하고, 소탈하지만 노숙한 신사이다. 외양 따위에는 별로 신경을 안 쓰면서도 촌티는 어느 정도 벗고 있다. 그는 대부분의 환자를 언제나 어린이아 다루듯 스스럼 없이 대하면서 특별히 새삼스러운 태도를 보이는 일이 별로 없지만, 어찌다가 진지한 얼굴을 하고, 응답을 하면서도 똑똑 잘라 버려서 상대방을 놀라게 하는 진찰을 한다. 의사이면서도 별로 약을 잘 주지 않는다. 아니 그보다도 진찰하기를 좋아하지 않는다. “뭐? 약? 약 같은 거 너무 먹을 것이 못되, 약은 독이야. 뭐 영양식품? 그런 것 필요 없어. 도대체 인간들을 웅담이다, 뱀탕이다, 뱀장어다, 노루다, 너구리다 등 너무 정력적인 것만을 찾다가 외려 인체의 조화를 깨뜨리기 때문에 병이 생기는거야.”<sup>6)</sup>

김종오의 『노장인생학』은 어렵게만 생각했던 공자와 노자의 생각을 쉽게 풀이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예문을 통해서도 보듯이 그의 글은 지루하게만 느껴지는 고전을 재미있게 보여주고 있다. 공자와 노자는 사상에 서부터 다르다고 볼 수 있다. 인간의 욕망은 자연과 정반대에서 온 것이다. 인간은 자신에게 만족할 때만이 풍요롭다고 한다. 그렇다면 많은 것을 가지고도 부족함을 느끼는 인간은 자연보다는 반자연적인 생활에 익숙해 있을 것이다. 우리가 시골의 농사짓는 농부와 천진한 어린이를 보면 그들은 가진 것이 없지만 만족하고 자연에 가까이 있음을 알 수가 있다. 인간이 자연을 가까이하려고 할 때만이 자연은 곁에 있으며, 많은 것을 가지고 싶어하고 문명에 가까이 있을수록 그들은 자연과는 멀어지는 것이다. 노자의 말을 빌리지 않더라도 인간은 세속에서 멀어질 때 자연은 우리 가까이 있는 것이다.

현대인들은 자연적인 것보다는 인위적인 것에 중점을 두고 살아가고 있다. 몸에 좋다면 물불을 가리지 않고 동물들을 잡아다가 보양식으로 먹는다. 그런 다음에 몸이 아프면 병원에 가서 아파 죽겠다고 소리 지르기도 한다. 만약에 자연적인 음식인 채식과 육식을 부리지 않는다면 인간은 아프지 않을 것이다. 부자와 거지를 보더라도 부자는 돈이 많아서 기름진 음식을 많이 먹다보면 현대의 성인병이 많이 걸린다. 배고픈 거지는 음식을 많이 먹지 못해서 병은 덜 걸린다. 건강은 자연적인 음식과 절제한 삶으로부터 오는 것이다. 자연적일 때 인간은 조화로움 속에서 행복할 수 있다.

조선조 사대부들에게 자연은 어떠한 공간이었을까? 그들에게 있어서 자연은 한가로움과 여유의 공간이었을 것이다. 이는 맹사성의 <강호사시가>에서는 벼슬에서 물러난 다음 자연이 보여주는 여유와 한가로움에 자신을 맡기고 자연과 하나가 되고자 하는 합자연의 태도에서 확인할 수 있다. 그리고 자연을 심성수양 공간으로 인식하는 태도이다. 현실은 세속적 욕망과 번뇌로 들끓는 번잡한 공간이지만, 자연은 언제나 본연의 모습을 지키고 있어 현실에서 받은 상처와 고통을 털어내고 본래의 깨끗함을

4) 김행선, 『동서양 고전의 이해』, 이회문화사, 1999, 188쪽.

5) 朴一峰, 『中國思想史』, 육문사, 2000.

6) 김종오, 『노장인생학』, 정신세계사, 1987, 17~19쪽.

회복하게 해주는 공간으로 인식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이는 유가적 세계관에서 깊이 영향을 받은 것으로 이현보의 <어부가>류의 작품에서 확인된다. 그리고 자연을 避世의 공간으로 인식하려는 태도이다. 조선 중기 이후 잦은 당쟁으로 정치 현실이 보여준 냉혹함을 두려워한 일부 지식인들은 자신을 온전하게 지키기 위하여 처음부터 出仕하는 것을 포기함으로써 생겨난 자연적인 태도이다. 이렇듯 자연을 인식하는데 각기 다른 태도를 표방하게 된 것은 각 개인마다 그리고 시대마다 자연을 달리 인식하게 한 여러 요인에서 비롯된 것이지만, 그 밑에 관류하고 있는 큰 흐름은 귀거래에 대한 동경 때문이다. 즉 부당한 현실에 자신을 굽히고 관리로 살기보다 차라리 현실을 등지고 자연으로 귀의하여 일생을 마감하였던 도연명 이후 그를 추종하는 인사들을 중심으로 생성된 독특한 기풍을 우리는 편의상 “귀거래 의식”이다.<sup>7)</sup>

조선조 사대부들에게 자연은 한가로움과 여유 공간이었을 것이다. 벼슬에서 물러난 다음 자연과 벗하며 살고자 했던 것이었다. 여유와 한가로움 속에서 자연과 하나가 되고자하는 현재의 삶은 세속의 공간으로 변해가 끊임없이 들끓고 있지만 자연속 공간에서는 본래의 모습을 지키고 회복시켜주는 공간으로 보고 있다. 이것을 최진원은 귀거래 의식으로 연결 짓고 있다.

다음으로는 손중흠의 조선조 선비들의 공간인 강호에 대한 글이다.

물리적으로는 세속의 공간과 맞닿아 있고, 관념적으로는 이상세계가 실현된 장소가 바로 강호다. 그러나 강호가도를 짓고 즐기는 작가는 속세의 공간으로 완전히 떠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속세에서의 정치적인 삶 역시 완전히 포기하기 어렵다. 또한 자신을 지탱해주는 핵심이 되는 사상으로 정치적 이념을 이루는 유교의 世界觀도 버릴 수도 없고 떠날 수도 없기 때문에 선비에게 있어서 강호라는 공간은 세속적 현실과 관련된 의미를 가질 수

밖에 없게 된다. 따라서 이곳에서 생활하는 작가는 평소에 동경하던 이상세계를 실현하는 공간으로서의 강호를 또 다른 각도에서 이해하고 활용하게 된다. 그것은 인간이 자연의 일부이며, 그것과 하나가 되는 경지가 가장 바람직한 모습이라는 옛 성현의 가르침을 실천함과 동시에 이를 통해 스스로의 몸과 인격을 수양함으로써 천하를 편안하게 이끌고 다스릴 수 있는 품격 갖출 수 있도록 하는 공간으로 만드는 것이 된다.<sup>8)</sup>

조선시대 선비들의 공간인 강호를 선비들의 삶에서 생활의 공간으로 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선비들은 정치적으로 힘들었을 때에도 강호를 생각하면서 힘들고 괴로움을 참았을 것이다. 정치에 벗어났을 때에는 강호에 묻혀서 지내다가 임금이 부름을 받으면 다시 정치계로 돌아갔을 것이다. 그러나 조선조 선비들이 대다수는 그러했을지라도 일부는 완전히 강호의 공간인 자연에서 묻혀서 세상의 시름을 잊고 지내려고 했던 선비들도 있었을 것이다.

조선시대 선비들이 살았던 삶의 궤적을 보면, 그들에게 있어서 강호는 정치에서 물러나면 피해 들어가서 잠시 쉬어가는 피난처가 아니었나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된다. 왜냐하면 강호를 노래한 시조나 가사의 내용만으로 보아서 평생 그곳에 묻혀서 절대로 나가지 않을 것 같았던 그들이 중앙정계로 진출할 기회가 생기면 곧바로 떠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이다. 이런 이유 때문에 강호가사의 작가들은 먼 산을 바라보며 잔을 기울이지언정 歸山의 뜻으로 入山 修道할 사람이 아니라고 보아 강호에 대한 관조자로 보기도 한다. 강호가사의 작가인 조선시대의 선비들을 이렇게 보는 가장 큰 이유는 사회경제적으로 볼 때 그들은 지극히 안정된 신분과 함께 생계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될 정도의 경제력을 가지고 있는 계층으로 강호의 공간이 삶에 있어서 없어서는 안 될 필수불가결한 것이 아니었기 때문일 것이다.<sup>9)</sup>

7) 崔珍源, 『國文學과 自然』, 성균관대학교 출판부, 1986, 10쪽.

8) 孫鐘欽, 「江湖歌辭의 傳統과 繼承方向」, 『古詩歌研究』, 韓國古詩歌文學會, 244~245쪽.

조선조 선비에게 있어서 자연은 인간이 자연의 일부임을 알고 자연 속으로 들어가고 싶은 곳이다. 그들은 자연 속에서 한가로움과 여유를 찾았을 것이다. 자연 속에서 한가로움과 여유를 찾고 그곳에서 성현들의 가르침을 새기고 실천하려는 자세를 갖추었다. 그런 다음 벼슬에 돌아와서는 자연에서 몸과 인격을 수양했던 것을 치세할 때 반영시키고자 했던 것이다. 조선조 선비들은 벼슬을 버리고 자연에서만 귀의 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자연 속에서 있으면서 벼슬을 버릴 수도 없는 그런 중간에 있었던 것이다. 이것은 강호자연으로 자연과 성현의 도를 함께 하고자 했던 조선조 선비들의 생각이다.

정극인의 자연생활은 노자의 사상을 바탕으로 하고 강호에 있지만 결코 사회를 벼슬에 대한 미련은 저버리지 않고 임금을 그리워하는 면이 남아있다고 본다. 정극인의 자연성은 양면성이 드러난다. 조선조 선비들은 벼슬에 있으면서 자연으로 돌아갈 것을 항상 생각하고 있었다. 정극인도 벼슬에 있으면서 늘 자연으로 돌아갈 것을 생각했는데 이는 조선조 선비들이 자연으로 돌아갈 생각보다 정극인이 자연으로 돌아갈 생각이 더 강했다.

본고에서는 정극인의 시가에 나타난 귀거래자연과 강호자연이 작품에 어떻게 드러나는 것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 3. 정극인 자연시의 실체

#### 3.1 <불우현곡>과 강호

정극인의 작품은 가사 경기체가 한시 시조 등 장르가 다양하다. 한 시인이 여러 형태의 시가를 창작하였다는 것은 국문학계에 보기 드문 경우

이다. 국문시가인 <상춘곡>은 봄날의 자연에 아름다움을 노래했으며, <불우현곡>은 임금님의 성은에 감격하여 노래했고, 시조에서는 연군과 자연을 노래한 내용이다. 정극인의 시와 가사의 기저에는 자연을 노래하고 吟詠했던 작품들이 주류를 이룬다는 점으로 보면 자연시라 생각된다.

정극인의 작품의 기저에는 자연시가 주류를 이루고 있고, 여기에서는 경기체가인 <불우현곡>과 가사인 <상춘곡>만 살펴보고자 한다. <불우현곡>과 <상춘곡>을 대상으로 삼은 이유는 정극인의 작품에서 자연을 소재나 주제가 많이 드러나 있기 때문이다.

먼저 <불우현곡>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한다. <불우현곡>은 1472년에 창작된 작품으로 전체가 7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불우현곡>의 내용은 서사, 본사, 결사 세 단락으로 나눌 수가 있다. 서사는 1장이며, 본사는 2~6장이며, 결사는 7장으로 나누어지는 삼단계의 구성으로 되어있다. <불우현곡>에 드러난 자연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山四回 水重抱 一畝儒宮  
向陽明 開南牕 名不憂軒  
左琴書 右博奕 隨意逍遙  
偉 樂以忘憂 景 何叱多  
平生立志 師友聖賢 (再唱)  
偉 遵道而行 景 何叱多<sup>10)</sup> (제1장)

산은 사방으로 둘러있고 물이 거듭 안고 흐르는 곳에 작은 선비의 집 햇볕을 따라서 남으로 창을 낸 집, 이름하여 불우현이라.  
왼편에는 거문고와 책, 오른쪽에는 장기와 바둑, 마음 따라 한가히 거니니.  
아, 근심 없이 즐거운 모습 어떠한가.  
평생에 세운 뜻은 성현을 스승과 벗으로 삼는 일  
아, 도를 좇아 행하는 모습 어떠한가.

9) 孫鐘欽, 『江湖歌辭의 傳統과 繼承方向』, 『古詩歌研究』, 韓國古詩歌文學會, 253쪽.

10) 『불우현집』

<불우현곡>의 1장에서는 정극인이 벼슬을 버리고 산골 시골인 태인현 고현동에 들어와서 있게 된다. 태인에 아름다운 자연 속에 있으면서도 책과 거문고를 벗삼고 있다. 자연 속에 들어와 즐거운 모습을 노래하고 있고, 또한 성현을 스승으로 모시면서 도를 좇아 살고자 하는 작가의 뜻이 잘 드러나 있다. 정극인은 태인현 고현동에 들어와 살면서 그 곳의 아름다운 경치를 그리고 있다. 근심없이 즐기는 모습과 그의 평생에 성현들을 스승으로 삼아서 도를 좇아 행하는 모습을 그리고 있다.

再上疏 關異端 依乎中庸  
 進以禮 退以義 守身爲大  
 備員霜臺 具臣薇垣 引年致仕  
 偉 如釋重負 景 何叱多  
 一介孤臣 濫承天寵 (再唱)  
 偉 再參原從 景 何叱多

거듭해서 상소 올려 이단을 피하고 중용에 의지하며.  
 예로써 나아가고 의로써 물러나니 몸을 지킴이 크네.  
 상헌부와 사간원의 숫자만 채우는 벼슬살이 나이 들어 물러나니.  
 아, 무거운 짐을 벗어버리는 모습 어떠한가.  
 한낱 외로운 신하, 임금의 은혜 넘치게 받네.  
 거듭해서 벼슬을 받은 모습 어떠한가.

위의 시는 작자가 머물렀던 벼슬길에서 물러나 있어도 임금의 은혜와 흠모에 대한 것이 드러난 것을 보면 강호자연이다. 정극인의 본마음은 전원 생활에 살아가면서도 벼슬길에 나가고 싶다는 의미가 나타난다. 임금의 은혜를 받은 행복감에 취해서 쓴 시로 보면 강호에 있으면서도 필자의 본마음은 벼슬에 나가고 싶은 의미가 나타난다.

尹之任 惠之和 我無能焉  
 聖之詩 諺之樂 乃所願也  
 上不怨天 下不尤人 心廣體胖  
 偉 不懼不憂 景 何叱多  
 不伎不求 何用不藏 (再唱)  
 偉 古訓是式 景 何叱多<sup>11)</sup>

伊尹의 임무에 대한 책임감, 柳下惠의 화합. 나는 무능하네  
 성인의 때를 알아 행하심과 顏淵의 즐거움이 나의 소원이야.  
 위로 하늘은 원망 않고 아래로 사람을 탓하지 않으니, 마음이 넓고 몸도  
 편안하네  
 아, 두려움이 없고 근심이 없는 모습 어떠한가.  
 해치지도, 탐욕도 없으니 어찌 훌륭하지 아니한가.  
 아, 옛사람의 교훈을 본받는 모습 어떠한가.

위의 시는 성현의 교훈 본받고 특히 공자의 제자인 안연을 본받고 싶어한다. “不伎不求 何用不藏”에서는 정극인은 속세에 대한 미련도 탐욕도 없다는 뜻을 드러내는 것을 보면 귀거래 자연이 드러나 있음을 알 수 있다. “偉 古訓是式 景 何叱多”에서는 옛사람의 교훈을 본받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는 것을 보면 강호자연이 드러나 있다. <불우현곡>에서 위의 시는 귀거래자연과 강호자연이 같이 나타나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불우현곡>은 작가 정극인이 살고 있는 태인의 경관속에 불우현 학당을 지어놓고 정성을 다하여 자라나는 어린아이들을 가르치는 일을 즐기며 출사의 욕심을 버리고 자연과 벗하여 분수에 맞게 살아가는 참된 선비의 삶을 노래하고 있다. 또한 생원이 되어 임금의 부름을 받고 잠시 벼슬에 나아갔으나 본래 성품이 환로의 뜻이 없어 예로서 물러나서 아름다

11) 不憂軒集, 卷二 歌曲.

운 자연 속에 살아가는 모습을 그렸고, 야인으로서 살아가는 보잘 것 없는 사람에게 임금은 잊지않고 유서를 내려준 성은에 보살피 준 성은을 항상 감사한다. 그의 삶은 범사에 감사하는 삶이었다. 감사하는 마음을 나타냈다. 또 세상은 어진 임금의 덕화로 요순과 같은 태평시대를 맞았으니 그에 대한 고마움과 만수무강을 축원하고 있다. 세상사를 잊고 성현을 스승으로 삼아 도를 좇아 분수에 알맞게 살아가고자 함을 읊은 노래가 <불우현곡>이다.<sup>12)</sup> <불우현곡>에서는 어진 임금의 덕화로 요순과 같은 태평시대를 맞았으니 그에 대한 고마움과 만수무강을 축원하는 것으로 보면 강호로서의 자연이 드러나 있음을 알 수 있다. 정극인은 세상의 일을 잊고 성현을 스승으로 삼고 도를 좇아 분수에 맞게 살아가고자 함을 읊고 있는 점도 강호로서의 자연이다.

<불우현곡>에서 드러난 공간은 아름다운 노령산맥이 흐르는 칠보강가에 자리하고 있는 태인의 전원을 노래하며, 나이가 들어 향촌에 돌아와 말년을 자연과 벗하여 태평시대에 안락하게 살아가는 모습도 그리고 있는데 이는 귀거래 자연이다. <불우현곡>의 작품에서는 정극인의 일생이 드러나 있다고 본다. 정극인의 일생의 삶을 통시적으로 드러내 있다고 볼 수 있다. 중요한 것은 이 시가의 바탕에는 언제나 자연애가 깔려있고 한편으로는 임금이 은혜에 성현들의 도를 찾아 살아가는 조선조 선비의 모습을 볼 수 있다. 벼슬에 나아가서도 강호를 잊지 않는 조선조 선비들의 모습이다. <불우현곡>에서는 귀거래자연과 강호자연이 함께 드러나 있는 시가이다.

### 3.2 <상춘곡>과 귀거래

정극인의 <상춘곡>은 작품의 내용면에서 보면 전원과 자연을 대상으로 삼아서 창작한 이른바 강호가사이다. 이 강호가사는 조선조의 가사문

학에서 큰 주류를 이루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이 강호가사로서 <상춘곡>의 뒤를 이은 작품이 <면양정가>이다. 그래서 송순의 <면양정가>는 정극인의 <상춘곡>로부터 영향을 받고 창작된 작품이라는 견해가 지배적이다. 또한 鄭澈의 <星山別曲> 창작에도 <상춘곡>이 영향을 끼쳤다고 보고 있다. 그러므로 “상춘곡→면양정가→성산별곡”으로 이어지며 이 세 작품은 같은 맥락이라고 보는 것이 통념이다.<sup>13)</sup>

정극인의 <상춘곡>은 가사의 최초의 작품으로 가사의 최초의 작품에 대해서는 이견이 있지만 <상춘곡>을 최초의 가사 작품으로 보고 있는 것이 학계의 입장이다. 정극인의 <상춘곡>은 79구로 되어 있다. <상춘곡>은 제목 그대로 있듯 봄을 찬양한 노래이다. 형식과 내용이 조화롭게 짜여 있으며 뛰어난 작품이다. 작품에 드러난 시상은 아름답고 형식은 비교적 자유로운 가사체를 사용하여 봄경치의 완상을 노래하고 있다. <상춘곡>은 정극인의 시문학에서 가장 핵심이고 중요한 자연의 실체를 드러내고 있다. 정극인의 <상춘곡>은 春景(엇그제 겨울지나~알니업시 호재로다), 賞春(이바 이웃들라 ~錦繡랄 재뻗난닷), 結詞(엇그제 검은 들이~이만한달 엇디하리)로 되어 있다. 이 <상춘곡>은 최초의 가사작품으로 보기 어려울 정도로 내용과 형식, 표현이 아름답다<상춘곡>에 드러난 자연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紅塵에 못친분네	이내 生涯 엇더흐고
넛사름 風流를	미출가 못미출가
天地間 男子몸이	날만흔이 하건마는
山林에 못쳐이서	至樂을 只를것가
數間 茅屋을	碧溪水 얹뻗두고
松竹 鬱鬱裏에	風月主人 되어서라

위의 시는 서사부분으로 “紅塵에 못친분네 이내 生涯 엇더흐고”로 시

12) 劉六禮, 「丁克仁 不遇軒曲 研究」, 『古詩歌研究』10집, 韓國古詩歌文學會, 2002, 205쪽.

13) 劉六禮, 「不遇軒 丁克仁 詩歌文學 研究」, 조선대 석사학위논문, 2002, 47쪽.

작한 것으로 보아 흥진은 세상에 물러나 있는 것을 대상으로 노래의 서구부터가 세상으로 부터의 완전히 끊고 있다. 세상에 물러나 있으니 이는 지극한 낙을 누리는 도연명의 귀거래 적인 점이 나타나는 것으로 보면 노장 사상과도 통한다.

<상춘곡>을 장덕순은 湖南歌壇의 形成에 대한 바탕이 된 작품으로 俛仰亭 宋純에게 계승되어 江湖歌道를 주창하기에 이르렀다<sup>14)</sup>고 말하며 조윤제는 이 <상춘곡>은 자연을 탄상하고 자연의미를 발견하여 들어가고 있다는 것을<sup>15)</sup> 말하고 있다. <상춘곡>에 대해서 장덕순은 강호가단의 형성으로 조윤제는 자연미의 발견으로 보고 있다.

엇그제 겨울지나	새봄이 도라오니
桃花 杏花는	夕陽裏에  뛰여있고
綠楊芳草는	細雨中에  프르도다
칼로  돌아낸가	붓으로  그려낸가
造化 神功이	物物마다  현스럽다
수풀에  우는새는	香氣를  못내계워
소리마다  嬌態로다	物我 一體어니
興이이  다를소나	柴扉에  거러보고
亭子에  안자보니	逍遙吟詠  하야
山日이  寂寂흔디	閑中 眞味를
알니업시  호재로다	

위의 시는 春景으로 “엇그제 겨울지나~알니업시 호재로다”로 봄의 경치를 드러내고 있다. 귀거래의 자연의 아름다운 모습을 노래하고 있으며 또한 자연에 만족하고 있다. 이는 정극인의 사상으로도 통하고 있다. 지난 겨울의 자연보다는 새봄의 자연을 읊고 있으며 봄의 자연은 아름답기

그지없어서 글로는 표현할 수 없는 부분을 “칼로 돌아낸가 붓으로 그려낸가”라는 시구로 표현해 내고 있다. “物我 一體어니” 시구는 자연과 하나가 되는 경지에까지 이르고 있는 것으로 보아 귀거래 자연이 잘 드러내고 있다.

이바  니웃드라	山水구경  가자스라
踏靑으란  오늘호고	浴沂란  來日호새
아침에  採山호고	나조희  釣水호새
긋피여  닉은 술을	葛巾으로  밧타노코
곳나모  가지것거	수노코  먹으리라
和風이  건듯부러	錄水를  건너오니
清香은  잔에지고	落紅은  옷새진다.
遵中이  뷔엇거든	날드려  알외여라
小童  아히드려	酒家에  술을들어
얼은은  막대집고	아히는  술을메고
微吟  緩步호야	시냇마의  호자안자
明沙  조흔물에	잔시어  부어들고
清流를  곱어보니	씨오느니  桃花   로다
武陵이  갓갓도다	저미이  권거인고
松間  細路에	杜鵑花를  부치들고
峰頭에  급피올나	구름소기  안자보니
千村  萬落이	곳곳이  버러잇닉
煙霞  日輝는	錦繡를  재펫는듯

위의 시는 賞春으로 “이바 이웃들라 ~錦繡랄 재펫난닷” 부분이다. 상춘은 주가의 술을 묶어 얼은은 막대집고 아이는 술은 메고 있는 모습은 죽림칠현의 모습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다. 술은 시인들이 즐겨쓰는 소재이다. “곳나모 가지것거 수노코 먹으리라”는 詩想은 후대 시인들이 즐겨

14) 張德順, 『韓國文學史』, 同和文化社, 1975, 261쪽.

15) 趙潤濟, 『韓國文學史』, 探究堂, 1981, 172쪽.

쓰는 구절이기도 하다. 위의 시는 노자의 무위자연의 사상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다고 본다. 정극인의 작품에서 노자의 무위자연의 사상은 <상춘곡>에 드러나 있음을 볼 수 있다. 이는 귀거래 자연으로 연결 지을 수 있다.

엇그제 검은들이	봄빛도 有餘홍사
功名도 날씩우고	富貴도 날씩우니
淸風 明月外에	엇던벗이 잇스올고
簞瓢 陋巷에	훗튼혜음 아니헛닉
아모타 百年行樂어	이만흔들 엇지헛리 <sup>16)</sup>

위의 시는 結詞로 “엇그제 검은 들이~이만한달 엇디하리”로 청풍명월에 자연을 벗으로 삼은 것이 주된 목표이다. 자연 속에서 공명도 부귀도 다 잊어버리고 완전한 자연으로 들어와 만족하는 삶이 드러나 있다. 이는 귀거래 자연이다.

정극인의 <상춘곡>으로부터 시작된 호남의 강호는 송순의 <면양정가>로 다시 정철의 <성산별곡>으로 이어지면서 강호의 바탕을 확실하게 마련해 준다.

#### 4. 맺은말

일반적으로 자연은 노자의 자연을 생각한다. 자연은 공자의 자연과 노자의 자연으로 구분해 보았다. 정극인의 문학작품에서 <불우현곡>과 <상춘곡>을 대상으로 살펴보았다. 공자의 자연은 강호자연이고 노자의 자연은 귀거래자연으로 보고자 한다. 그러나 벼슬과 자연에 묻힌 생활을

반복하고 살았던 정극인은 출세지향적 유교인이고 자연에 묻혀있는 노자인이기도 한 양면성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그가 남긴 경기체가, 가사, 한시, 시조에는 다양한 양면성이 드러나 있다.

정극인이 작품 기저에는 다양한 양면성이 드러나 있는데 특히 <불우현곡>에서는 강호자연이 드러나 있고 <상춘곡>에서는 귀거래자연이 길게 드러나 있다. 정극인의 문학 작품에서는 두 양면성이 드러나 있음을 볼 수 있다.

#### 참고문헌

不憂軒集  
井邑文化院, 新編井邑人物誌  
靈光丁氏族譜  
靈光郡誌編纂委員會, 靈光郡誌  
靈光丁氏族譜  
玉堂골鄕土文化史料緝  
鄕土文化社, 井州市誌

金東旭, 「國文學概說」, 民衆書館.  
金思燁, 「國文學史」, 正音社, 1956.  
張德順 外, 「韓國文學史의 爭點」, 集文堂, 1999.  
李秉岐, 「國文學史」, 正音社, 1956.  
趙潤濟, 「韓國文學史」, 探究堂, 1994.  
張德順, 「韓國文學史」, 同和文化社, 1975.  
——, 「國文學通論」, 新丘文化社, 1961.  
김행선, 『동서양 고전의 이해』, 이회문화사, 1999.  
김종오, 『노장인생학』, 정신세계사, 1987.

16) 不憂軒集, 卷二 歌曲.

- 김성기, 「俛仰亭1 宋純의 自然詩 研究」, 『南冥學研究』, 慶尙大學校 南冥學  
연구소, 2000, 13쪽.
- \_\_\_\_\_, 「송강의 자연관」, 『古詩歌研究』, 韓國古詩歌文學會, 1995.
- 朴一峰, 『中國思想史』, 육문사, 2000.
- 孫鐘欽, 「江湖歌辭의 傳統과 繼承方向」, 『古詩歌研究』, 韓國古詩歌文學會  
2009
- 劉六禮, 「不遇軒 丁克仁 詩歌文學 研究」, 조선대 석사학위논문, 2002.
- \_\_\_\_\_, 「丁克仁 不遇軒曲 研究」, 『古詩歌研究』 10집, 韓國古詩歌文學會,  
2002.
- \_\_\_\_\_, 「丁克仁의 贈詩 研究」, 『古詩歌研究』 14집, 韓國古詩歌文學會, 2004.
- \_\_\_\_\_, 「정극인 한시의 미학」, 『古詩歌研究』 22집, 韓國古詩歌文學會, 2008.
- 洪在然, 「歌辭文學論」, 『國文學研究』 8집, 효성여자대학교 국어국문학과,  
1984.

<투고일 : 2009. 6. 30. 심사일 : 2009. 7. 16. 심사완료일 : 2009. 8. 11.>

## Abstract

### A Study on Jeong Geuk-In's Poetry of Nature

Yu, Yuk-rye

Jeon Geuk-In described natural beauty of gardens and forests through writing poetry while he was living in Taemin. His <Sanchungok> contributed to formation of Ganhogadan. In particular, its influence expanded to Song Soon and Jeong Chool. The subjects of his natural poetry were shown in Chinese poetry, Gyeonggichega, lyrics and verses, but they are significantly described especially in <Sangchungok> and <Bulwoohungok>. The nature in his poetry involves rivers and lakes and homecoming after his resignation from a government office.

In general, nature indicates the nature explained by Laozi. This study categorizes nature into nature of Confucius and that of Laozi and analyses it targeting the nature in <Bulwoohungok> and <Sangchungok> by Jeong Geuk-In. The nature of Confucius involves rivers and lakes, and that of Laozi involves homecoming. However, Jeong Geuk-In worked for government office and retired into nature. He had two sides of a Confucian who pursued career success and Taoist who sequestered himself from the world. Therefore, <Bulwoohungok>, <Sangchungok>, Chinese poetry and Korean verses he wrote showed such two-sidedness.

There are various styles of two-sidedness in his poetic works and in particular, <Bulwoohungok> describes nature of rivers and lakes while <Sangchungok> describes homecoming after his resignation.

Therefore, his literary works definitely show such two-sidedness.

Key words : Jeon Geuk-In, poetry of nature, <Bulwoohungok>, <Sangchungok>, nature of rivers and lakes, homecoming after resignation from a government office, two-sidedness